

소비행태 변화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역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연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우리나라 축산 현실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목소리와 더불어 희망의 제기를 위한 각오도 높다.

우리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비의식은 매우 다원화 되고 다양화 되어 축산식품의 기존 현실을 바꿔 놓은 역할이 되었다.

과거에는 축산 식품 등급이 없는 즉, 품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격에 국한 되었던 소비자의 선택이 이제는 품질(등급)과 가치까지도 고려하는 소비행태로 발전 되어왔다.

그에 못지않게 정부도 우리나라 축산업의 열악한 현실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축산식품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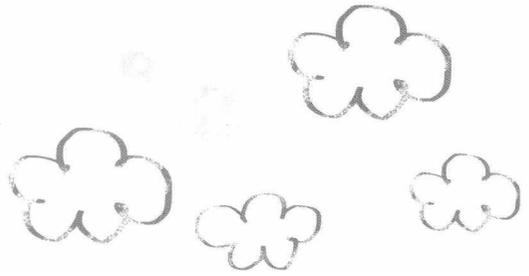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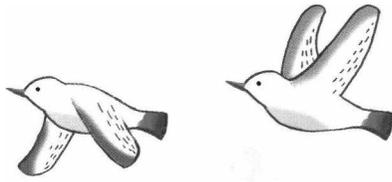
예를 들면 축산물등급제, 생산자이력제,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등의 제도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품질향상을 위한 근간을 확고히 하는데 엄청난 축산인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함께 소비층을 높이고 확산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각 제품별 축산 식품 선택 범위와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웰빙에 대한 소비자 의식 변화로 인해 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축산식품을 기피하는 소비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중이 늘지 않고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닭가슴살의 인기는 다이어트 식품군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쇠고기의 경우 1등급에 대한 마블링 효과에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한 등급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즉, 마블링의 효과는 연육 작용과 맛에 대한 질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지방질을 거부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는 건강과 직결된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꼭 등급 판정에 대한 기준이 하나의 기준에 의한 것이 적정할까?' 라는 소비자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서 안전, 맛, 품질, 가격 등의 여러 요인에 대한 비교 기준은 있겠지만 우선은 다양한 소비자 의식과 행태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정과 신뢰는 매우 높고 구매력에 있어서도 우리 축산 농가가 생산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도 매우 컸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자는 과거의 단순한 품질, 가격, 서비스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 세분화된 경쟁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요구하고 차별화 되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의 등급과 기준 등이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직접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시장에서의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축산물의 위생 안전, 품질 경쟁력은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다.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투명성에도 관심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력과 제도적 밑받침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심과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제도적 장치의 신뢰성이다. 개방화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특성은 믿음과 공유로써 함께 지켜나가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즉, 소비자에게 가격과 비가격적인 가치를 동시에 증시하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